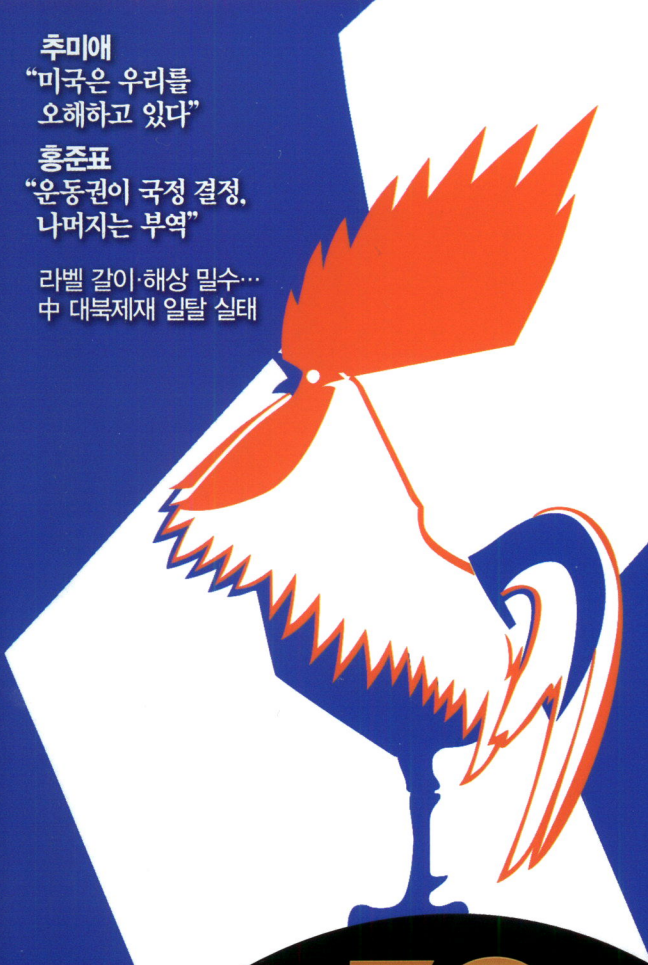




亞東新

01
shindonga.donga.com
2018

1931년 창간호 표지와 제호



추미애
“미국은 우리를
오해하고 있다”

홍준표
“운동권이 국정 결정,
나머지는 부역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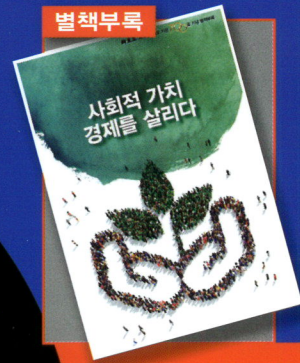
라벨 같이 해상 밀수...
中 대북제재 일탈 실태

단독취재
국정원
농단의 서막
최순실파vs박지만파
‘고추전쟁’

특집
촛불정부 원년,
‘나라다운 나라’ 얼마나
▲경제 ▲안보 ▲인사 ▲적폐수사 ▲민주주의

단독공개&인터뷰
이국종 교수의
10만9000자 비망록
“예산 증액? 뜯어먹고 나눠 먹어
중증외상 치료에 쓰일 돈 없다”

별책부록



‘신동아 700호의 길’

사회 각계 리더의 축하 메시지

종합잡지 최초 700호의 언론사적 의미